

독일사회의 문화적 갈등위기와 민속학의 역할*

Folk studies coping with socio-cultural conflicts in Germany

Myun Kim**

Department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study aims to show how the culture of the immigrants was part of the wider German culture, and thus to expand the original concept of folk culture to include the immigrants as a vital part. In other words, the diversity of the immigrants' culture were acknowledged as an enriching element of German cultur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t is actually difficult to discern unique features of one's own culture. As cultures in variou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in the process of mutual and permanent exchanges, it is requisite to reevaluate the concept of folk culture in accordance with a changing world.

Key Words: German folk studies, cultural conflicts, social integrat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독일사회의 문화적 갈등문제를 진단해보면서 과거 단일민족성의 편향성을 탈피하며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자한 독일민속학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전후 동유럽지역에 살던 독일계 주민들이 독일로 귀환하면서 거주민과 생활문화 및 문화적 갈등을 경험한다. 이들은 민족구성원이면서도 타국의 구성원이었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관련한 민속학의 학술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냉전 체제에서 동·서독민속학의 전개과정을 쫓아서 분단된 이념의 틀에서 달라져온 민속학 학술형태와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통일이후에 구동독주민과의 갈등과 내적 통합을 고민하는 연구 활동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터키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공동체와 주류사회에서 보이는 문화적 이질성의 갈등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다문화현상과 탈전통의 민족담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11-327-A00728)

** Tel. +82-2-2049-6279. E-mail. drmyunkim@naver.com.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17, 2015 / Revised: Mar. 9, 2015 / Accepted: Mar. 14, 2015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가치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가는 민속학의 학문적 전개상을 다루어보았다.

주제어: 독일민속학, 문화적 갈등, 사회적 통합

I 서론

전쟁이후 독일민속학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과거 민속학은 낭만주의 철학이념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적 색채가 폭넓게 각인되었다. 따라서 민속학은 한때 나치정권에 의해 민족우월주의를 정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선전 매체화 되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한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민속학은 과거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뒷받침하던 학문전통의 흐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관련 학자들은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며 시대변천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학문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논고는 과거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및 구동독주민과의 문화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독일민속학의 변천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시기별로 민속학이 보인 학문진로의 발전적 변화와 민속학이 동시대의 실증적 문화학으로 재정립해 나아가는 학술흐름을 조명할 것이다.

우선, 전후 동유럽지역에 살던 수백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독일로 대거 이주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새로 유입된 독일계 신향민들은 체화된 상이한 생활문화와 정체성의 격차로 기존 주민들과 사회적 문화갈등을 표출하였다. 민족주의 과거사의 청산과 함께 사회적으로 내부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극복과정에서 민속학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흐름을 대두시켰다. 당시 이주동포의 문제와 관련된 민속학의 대응과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냉전시기 동·서독은 독자적으로 이념적 기반을 세우고 대립된 체제 하에서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전개시켰다. 분단은 사회체계뿐 아니라 생활양식 및 가치관까지 양분하였고 민속학의 연구방향 및 역사의식도 다르게 나타났다. 양측이 갖는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어땠으며 민속학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은 어땠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나아가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해소와 주민통합을 위해서 변모하는 민속학의 전개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제시장과 노동력의 수급 필요성으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 다인종국가로 바뀌어가면서 독일은 다른 민족, 외래문화 및 타종교를 지닌 이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속학의 대응을 살피고 문화통합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냉전 종식이후 이주민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다. 시대적으로 사회적 혁신을 주도하고 폭넓은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확대하고자 민속학이 어떠한 매개적 노력을 해왔는지 살피고자 한다.

독일이 겪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은 한반도의 국제정세, 지적풍토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전후 냉전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행됐던 민속학의 학술흐름 및 학문적 지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문화갈등과 통합논의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에게 학문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갈등으로 야기되었던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했던 독일학자들의 노력은 오늘날 분단체제에서 향후 통일한국과 다문화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후 민속학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그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주민 문화의 수용성에 대한 그들의 학술양상과 활동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분야의 좀 더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의 유입, 정착, 적응의 문제에 대응하였던 민속학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학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II 전후 사회문화적 갈등양상과 민속학 연구의 확장성

1. 재외 독일계 동포의 귀환과 민속학의 인식전환

전쟁이후 독일의 동부국경선이 확정되면서 동유럽에 살던 독일인들은 강제 이주되어야 했다. 당시 동부유럽과 남동부 유럽 지역에 대략 1,800만 명 이상의 독일인과 독일민족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동프로이센지역 250만 명, 동프롬 지역사람 190만 명, 동브란덴부르크 지역 65만 명, 쉘레지엔 지역 460만 명, 주테텐 독일인 350만 명, 발틱 독일인과 메멜란트 지역 25만 명, 단치히 38만 명, 폴란드 140만 명, 헝가리 62만 명, 유고슬로바키아 54만 명, 루마니아 79만 명, 러시아 독일인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주독 대사관, 1992: 344) 연방실향민법에 의하면 이 지역 동포들은 1937년 12월31일 독일제국의 국경이외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2차 대전과 관련하여 추방 및 국적박탈, 피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서 '실향민'(Heimatvertriebene)으로 불린다. 이들은 과거 독일제국 당시 동부유럽에 정착했던 농민들의 후손,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되었던 독일인 혹은 나치정권의 정치적 인종적인 박해로 인한 피난 및 망명 등의 여러 이유로 정착하였다가 종전을 전후하여 1,200만 명이 주거지를 상실하고 강제이주 되었다.1990년까지도 약 3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독일인들이 동유럽 및 동남부 유럽에 살고 있었다.

본국과 지리적으로 먼 거리인 동부유럽 내 폴란드지역, 루마니아 지벤뷔르젠, 바나트, 쉘레지엔, 체코 주테텐, 보헤미안과 헝가리 등에 살면서도 이곳 독일인들은 주변의 생활환경과 차별화한 채, 민족적 울타리를 유지하면서 독일어 및 게르만족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있었다. 독일에서 현대화, 산업화되면서 변화되거나 사라져가는 전통유산이 불변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언어 환경에 있어서도 생명력을 잃고 소실된 어휘들이 과거예전의 형태로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 공동체 내에 전통양식의 가옥들이 많이 남아있고, 전통음식과 조리법이 전수되었으며, 부활절, 추수제의 명절행사나

민간풍속 및 전통혼례의 옛 방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이웃 주변민족들과의 문화접변을 통해 폭 넓게 변형되거나 혼합된 독자적인 문화양식들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인 주거지역의 촌락들을 대상으로 1865년 만하르트는 추수경작의 풍속 및 논밭의례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였고 게르만의 신화와 민간신앙을 비교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1920년대에는 독일민속학회의 전신인 민속학협회연합이 독일민속지도를 작성하고자 체계적인 조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학회는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지역인 西프로이센, 단치히, 北슐레지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헝가리를 포함하여 유럽 내 독일어권 전역에 37개 지부를 두어 민속문화의 전승상태를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독일혈통의 주민들이 고립되어 모여 사는 지역과 이들의 전승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언어섬 민속학’이라고 한다.¹⁾ 제3제국시절 나치정권은 동부유럽으로 팽창정책을 이루고자 정착촌에 초점을 맞추어 민속학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하기도 하였다. 나치지도부는 동방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주하여 살던 재외독일인공동체를 ‘문화영토’로서 포괄하고자 한 것이다. 정책담당자들은 재외동포의 마을을 투쟁공동체란 용어를 사용하며 동구권진출에 대한 교두보로서 악용하기도 했다.

종전이후 독일은 침략에 대한 대가로 국경조정을 해야 했고, 舊소련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유고 등 동유럽지역에 거주하던 독일계 주민들 760만 명이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370만 명 정도가 동독으로 정착하였다. 그 외 43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오스트리아로,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유럽으로 옮겨왔다.(주독 대사관, 1992: 344)

전후에 언어섬 민속학은 ‘실향민 민속학’ 연구로 전환해 갔다. 민속학자들은 불변하는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찾고자 실향민들의 전통적인 형태의 민속을 살폈다. 뮌헨대의 크레첸바허(L.Kretzenbacher)는 유럽 남동부지역을 대상으로 루치아성녀 경배민속의 전승상태를 탐사하였다. 프라이부르크의 쿤치히(J.Künzig)와 베르히테스가덴의 카라쎈 랑거(A.Karasek-Langer)는 이주민의 정착촌 내 의례문화의 실태를 분석하여 변치 않는 민속의 전승력을 파악하였다. 이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베르너 쿤지히(W.Werner-Künzig)는 ‘동부독일 민속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채집된 생활사 자료 및 구술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여 학술정보의 기반을 구축하였다.(Weber-Kellermann, 1985: 132) 튀빙겐대 연구팀은 후고 모저(Hugo Moser)와 뢰커(H.Dölker)의 책임 하에 남동유럽 도나우 슈바벤지역 마을공동체 70곳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가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계승하고 있는지 그 명맥을 살피면서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소멸상태를 조사하였다.

이전 세대의 흔적을 간직한 동유럽 마을들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실향민들이 나고 자란 근원적인 고향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독일인정착촌에 초점을 맞추어 나치민속학을 발전시킨 전력이 있기에, 민족적 동질성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1) 언어섬(Sprachinsel)은 주변에 하나 혹은 여러 언어들에 의해 둘러싸인 특별한 언어사용지역으로 주변과의 지리적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다.(Glück 2000: .661)/ 언어섬 개념의 의미는 언어사의 좁은 의미를 넘어서 거주사와 민족이동(이주사)의 틀 안에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생활사측면에서 문화현상(문화역동성)으로 이해된다. (Voigt 2000/2001. 211)

담고 있다. 양독 간 민속학계는 이와 관련하여 1950년대 중반 심한 대립을 갖기도 하였다. 구동독은 서독의 실향민민속학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였다. 서독정부가 과거 독일제국의 옛 영토였던 동유럽지역을 재탈환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실향민 민속학’위원회를 세우고 어용단체를 통해 고향과 민족의식을 악용하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를 상대로 민족갈등을 부추긴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실향민 민속학은 불편한 과거사로 인하여 향후 학문진로에 있어서 脫민족, 脫국가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학자들은 민족공동체와 민속문화의 유대감에 대한 내셔널리즘적 고찰에서 벗어나 실질적 대안으로서 이들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실향민들이 독일사회에서 생활하며 겪는 문화적 갈등에 주목하였다. 독일 혈통의 이주민들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였다고 생각되어서 선조의 땅인 독일로의 정착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낮은 타국의 환경에서 자란 이들의 문화양식과 정체성은 본토의 주민들과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다양한 출신지역에 따라 재외독일인은 국내이주 후 현지의 상이한 생활문화로 사회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낮은 이방인처럼 쉽게 적응할 수 없었다. 학자들은 실향민들이 타지의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내는 정체성의 변화를 보았다. 이들이 창출하는 생활양식, 가치관 및 문화적 관습이 독일전통의 그것과 닮지 않았기에, 민속학은 이주민이 지닌 체화된 정체성의 변화를 규명하여야 했다.

튀빙겐 대학의 바우징거 교수는 재외이주민이 국내로 귀환하여 새롭게 정착한 마을과 이들의 민속양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루마니아 부코비나에서 국내 슈투트가르트에 이주 정착한 후 생성된 문화요소에 주목하였다. 옛 민속형태의 전승과 단절을 살피는 선행연구방식에서 벗어나 그는 새로운 문화양식으로 대체, 적응하는 현재의 변화과정을 중시하였다. 민속을 고정된 문화요소로 인식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이 변용되는 문화양식에 접근한 것이다. 연구성과물로 “新정착촌”(Neue Sidelungen)을 브라운(M.Braun), 슈베트(H.Schwedt)와 함께 1959년 발표하였다. 바우징거는 민족성에 집착하는 기존의 학술전통을 비판하고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실향민의 생활세계를 규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연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변화된 실향민의 문화를 인식할 연구방법론을 모색하였다. “기술세계의 민속문화”를 1961년 발표하여 민속학이 현실적인 맥락에서 기존연구의 틀을 확장하여 민중의 일상적인 모습을 조명할 것을 역설했다.(Bausinger, 1961) 민속연구에서 내재된 시간과 공간을 확대하고 민족문화의 주체를 다양한 구성원까지 포괄하여 이들의 삶을 이해해보려고 하였다. 특히 전통은 현대문명안에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환경이 변화에 따라 전통의 동력도 변화된다는 확장이론을 제시하였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그레베루스는 “민속학의 향수적 회고적 방향성에 관하여”란 논고에서 ‘고향’과 같은 향수적 표상은 옛것의 ‘상실’ 및 ‘열등감의 강박관념’에 의해 동기된 것으로 과거 게르만의 영광신화로 회귀하도록 만든다고 경계하였다.(Greverus, 1969: 11-26) 따라서 고향이 갖는 낭만주의적 태도를 대신하여 인류학적,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실향민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문화양식을 조명할 것을 주문한다. 마부르크 대학의 베버 켈러만은 루마니아 바나트지역에서 독일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의 다중 언어마을을 중심으로 민족 간 상호문화성을 연구하였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전의 문화

가 새로운 문화요소와 조합되고 동적으로 변용되어서 현재 문화의 기초를 이루는 변증법적 확산과정을 주목하였다.(Weber-Kellermann, 1973) 쉐크는 지벤뷔르겐 마을공동체의 가족과 주거양식을 조사하면서,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사는 마을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혼용화된 과정을 추적하였다.(Schenk, 1984) 그 외 이주에 따른 삶과 의식의 변화를 규명하거나 이주민의 문화다원성 및 정체성을 탐구하는 민속 연구들이 추진되었는데, 실향민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하고 간문화적 이해역량을 키우기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4-96년에는 체코와 독일연구자가 한 팀을 이루어 뵘뉘 독어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정체성과 집단기억을 조사하며 국제협력연구의 한 선례를 보이기도 하였다. (Eisch, 2001:149)

2. 분단된 민족문화에서 통일문화의 형성으로

전후 독일은 서방진영과 공산체제로 갈라져서 양분되었고 각각 국가의 기본이념과 정책을 내세워 체제의 정당성을 우선시하였다. 이들은 상이한 정치, 사회, 경제 제도를 전개시켰고 사회문화적 간극을 만들어서 일반주민의 생활양식 및 가치관까지 양분하였다.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차이만큼 학문의 연구시각과 접근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동독지도부는 민족적 관심보다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성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다. 동독민속학은 전통적 관념론적 요소에 거리를 두었고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이론을 신봉하였다. 따라서 반과시즘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이념을 토대로 인민의 민주혁명적 전통과 진보적인 문화형성력을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Weber-Kellermann, 1985: 142-143) 동독학자들은 과거에 매몰되어있던 노동계급의 저항정신을 발견하는 것과 민족문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Steinitz, 1955: 42-47) 반면에, 서독민속학은 제3제국시절 민속연구의 활동을 민속학사의 전개과정에서 이탈한 시기로 간주했다. 전후 전통적인 학과모습을 재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토속학적 향토양식을 연구하는 학술흐름을 이끌어갔다. 동·서독민속학은 60년대 중반까지 이념 대결적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민족통합적 조망이 사실상 어려웠다.

68혁명의 사회적 여파 속에서 서독민속학계는 보수주의적 이념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엠머리히(W.Emmerlich)를 시발로 튀빙겐 학파는 민속학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69년 뎃몰트(Detmold)와 1970년 팔겐슈타인(Falkenstein)에서 열린 학회에서 민속학의 명칭, 이론과 진로에 대한 갈등과 논쟁이 표출되었다. 민속학이 사회변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기에 사변적 이론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성과 실질적 유용성을 지녀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통 끝에 민속학회는 동시대 사회비판적 연구로 학과를 재검립하였다.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민중의 생활문화를 분석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질화된 문화적층성을 인식하는 중대한 시각전환을 이루었다.

서독과 동독정부는 가능한 내독 간 문화교류를 국가주관의 공식적인 접촉으로 한정시키려 했다. 동·서독학계는 차별화된 민속연구를 취해야 했으나 분단된 상황에서도 제한적이거나 학술협력을 유지

했다. 50년대 슈타이니츠 학술원 부원장과 욘 마이어 민속학협회연합 회장이 독일전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민요공동연구를 함께하였다. 동독의 부르데 쉬나이데빈트와 서독의 포이케이트, 하일푸르트는 전국 전설집을 공동으로 목록화했다. 60년대엔 농업관련 물질민속 국제학술협력 및 자료교류가 이루어졌다. 80년대 동독 외무간부(Reisekader)인 야코바이트교수와 튀빙겐, 마부르크, 프라이부르크, 킬 대학교와의 학술교류를 볼 수 있다. 또한 Grimm독일어 사전의 공동출간 및 학술도서와 역사기록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이후 86년 5월 양독간의 공식적 문화협정을 이끌게 되었고 본격적인 대학 간 공동학술사업 및 학술지의 편찬,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여행지원, 박물관 교류, 문화행사의 방문운영 및 전통문화유산의 이전사업으로 귀결되었다. 1986년 10월엔 서독민속학회회장인 게르트가 뮌헨에서 주최한 민속학 심포지엄에 동독학자들도 함께 참석 통합학술행사로 진행하여 제3제국 나치민속학의 이념성문제를 조명하기도 했다.

서독학계는 동독과의 일정한 교류 속에서 노동자의 문화창조력 및 도시산업환경의 일상문화를 재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민속학계는 전통적으로 고전양식에 집중하고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선조들이 형성해온 정신문화의 기원을 해명하여 왔으나, 구동독학계의 비판적 안목과 성과에 영향을 받아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산업생산을 배경으로 한 노동계층의 문화적 유산 및 동시대 민중들의 생활양식을 살피도록 하였다. 방법론에선 물질민속 및 도시사회의 다양한 노동현상을 실증적으로 바라보도록 자극받기도 했다. 구동독에서는 정부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조하면서 위계적으로 학문의 제한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의 문화정책을 위한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민속학자는 서독과의 학술교류 속에 인민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 및 일상성을 연구함으로써 당의 일차적인 관심사인 정치사, 당파성 및 노동운동사의 전통을 벗어나서 학문의 일정한 틈새공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서독학계는 내부에서 일방적이고 대립된 모습이 아니라 분단이후 형성된 이질성을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민속학계의 활동은 학문교류와 협력 작업을 통해서도 공존할 수 있는 민족문화를 지향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되었다. 동독학술원은 폐지되었고 신연방주 대학교와 연구소는 개편되었다. 동·서민속학은 하나의 민속학이 되었고 더 이상 동독의 고유한 민속학을 찾기는 어려워졌다. 이후 독일민속학은 분단시기 동·서간 이질성의 간극을 좁히고자 추진했던 연구에서 통일을 계기로 파생된 사회 내 갈등위기의 해소와 내적 소통을 위한 인류학적 문화연구로 전환해갔다.

통일 이후 사회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통합은 신속히 이루어진 반면에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간의 사회통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동독주민들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하는 문제는 내적 통일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로 살게 된 구동독인들은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국가의 이질적인 문화시스템으로 분단되어 사회화되어왔기에 통일 이후 이들은 냉혹해진 생활세계나 노동시장에서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 구동독인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주눅이 들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민족성에 자긍심을 보여 왔다. 이들은 통일 전에는 구서독이 잘 살고, 살기 편한 나라로 여겼기에, 통일로 한 나라가 되면 구서독인처럼 풍

요 속에 살 수 있겠다고 예상했었다. 구동독인은 낭만주의적 민족관념에 의거하여 같은 혈연의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막연히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등국민으로서 취급되며 차별을 느끼게 되었다. 새로운 작업환경에선 고용주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과거 사회주의체제 내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구동독 시절 직장생활과 달리 서구식 경쟁과 자율적 업무추진은 이들에게 낯선 것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과거에 지녔던 사회적 지위는 사장되고 자신들이 무능한 노동자로 확일적으로 분류되며 마치 취약 계층으로 규정되면서 반감을 넘어 깊은 상실감을 경험한다. 이들은 일상의 도처에서 자본주의 환경이 낯선 노동자로서 타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구동독인은 구서독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민족이기는 해도 경쟁력이 없는 사회주의출신의 노동자일 뿐이다. 통일된 사회에서 고용의 불안감, 익숙지 않은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꺼려하는 허드렛일에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매달려야 하는 노동현실은 동독인의 타자화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오늘날 ‘오씨’와 ‘베씨’란 호칭은 심리적 장벽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서독주민들은 통일비용의 과중한 부담을 불평하며 구동독인을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편향적 시각은 이들에게 큰 환멸감으로 다가오고 동독에서 지켜왔던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의미는 사라진다. 현실에서 사회적 귀속감을 확인하기 보다는 차별과 갈등을 겪으며 서독인과 하나가 아님을 깨닫는다. 동·서독민의 감정적 갈등으로 구동독인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재인식하게 한다. 상처받은 민심은 구동독시절을 그리워하며 ‘오스탈기’라는 향수의 감정을 찾고 옛 동독사람들끼리의 교류에 집착하게 된다. 사회에서 느낀 동독인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서독인과 구별된 동독인만의 종족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여러 민속연구는 통일이후 삶의 변화양상과 동서독 간 문화적 차이를 주목하였고, 학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이질적 문화양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서 상이한 사회집단 간 심리적 차이를 좁히고 정서적 화합력을 신장하려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이후 일상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작업으로, 튀빙겐대의 코르프(G.Korff)는 변경된 거리명칭과 S-Bahn 일상 및 주거공간을 고찰하였다. 브레멘대의 엠머리히(W.Emmerlich)는 ‘제3공간’이란 표현을 써서 ‘이동 없는 정적인 이주’로 비유하며 구동독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단으로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다루는 작업을 살필 수 있다. 예나대의 그리스(R.Gries)는 일상의 식관습과 동독민의 정체성을 주목하고 기억문화와 고향의식을 다루었다. 마부르크대 메르켈(I.Merkel)과 베를린대의 카민스키(A.Kaminsky)는 소비문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차별화된 양식을 심층적으로 살폈고, 비쉬올렉(H.Wieschiolek)은 인사법과 같은 일상의례의 차이를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했다. 포츠담의 뮐베르크(D.Mühlberg) 및 베스터(M.Vester)는 환경에 따른 상이한 문화적 갈등을 동서 간 심성사 측면에서 인식하였다. 겐하르트(W.Gebhard)는 통일이후 두 마을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주민들이 겪은 사회변화의 간극을 비교했다. 아베(T.Ahbe)과 모일레만(H.Meulemann)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동독민의 오스탈기(향수) 현상을 연구하였다.

특히 비겔만 교수는 민속 문화를 사회 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하나의 체계(Systeme)로 보는 ‘시스템과 환경’이론을 제시하였다.(Wiegmann, 1991: 69-71) 그는 루만(Niklas Luhmann)의 시스템 이론을 도입하여 문화시스템이 사회의 외적인 환경 속에서 생산되고 기능한다고 보았다. 민중문화는 고정된 양식을 갖추고 정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변동 속에서 기존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시스템과 환경"이론은 문화의 외적인 부분들인 경제활동과 구조, 지역토대, 기술, 정치, 국가, 신앙, 소통구조, 학교, 이익단체 등 사회적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상호간에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문화체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사회구조 내 부분들과 체계요소가 각기 소통 구조를 이루고 문화를 생산하기에 문화는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형성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회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문화요소들과 새로이 도입된 문화는 상호 작용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을 보이게 된다. 문화는 하나의 고정불변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변화되는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내적 통합을 위해 동독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상생적 공존의 길

전후 독일은 5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인력난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외부에서 충원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이탈리아, 1960년 스페인과 그리스, 1961년 터키, 1963년 모로코, 1964년 포르투갈, 1965년 튀니지, 1968년 유고슬라비아와 노동력의 수입과 관련된 협정을 맺고 외국인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을 필두로 오늘날 독일사회에서 여러 다민족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2010년 통계수치상 독일에서 이민의 배경(Migrationshintergrund)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전체 독일인구 8,170만 명 중 1,574만6천 명으로 약 19.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민자 중 터키출신이 15.8%로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이종희, 2012: 62) 그러나 터키계 이주자들은 주류집단과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외부와 경계를 쌓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생활관습을 유지한 채 사회주변부에 모여 살고 있다.

독일사회는 빠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민족 사회를 경험하며 여러 이주구성원들과 공존을 위해 소수그룹의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정책을 일찍이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회 내 집단들은 서로 병존하였을 뿐이며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립성이 심화되었다. 나아가 중심과 주변의 위계구조 속에서 주변부의 소수자들이 사회 중심부와 거리감을 두는 ‘평행사회’(Parallelgesellschaft)²⁾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Heitmeyer, 1996) 이렇게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문화차별은 타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에 사회통합을 위한 적절한 접근일 수 없다.

2) 독일 내 주류사회로부터 터키이주민 및 소수민족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빌레헬트 사회학자 하이트마이어가 90년대 초 처음 도입하였다.

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독일계 주민들이 수십만 명이 본국으로 이주하여 독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반면에 혈통주의에 입각한 독일 정부는 오랜 기간 비서구세계의 이주민들에게 배타적인 빗장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2000년 국적법과 2005년 이민법의 개정은 이전 혈통중심에서 벗어나 속인주의 정책(Jus soli)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개선책에도 여전히 주류사회와 터키인 공동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다문화사회를 구축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이 실패했다고 2010년 10월에 인정하기도 했다. 다문화정책의 실패로 귀결된 것과 관련하여 베를린 훔볼트대 카슈바(W.Kaschuba)교수는 독일 내 배타성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독일에서 ‘이주자’와 ‘통합’ 논쟁은 역사적으로 명백히 지나치도록, 거의 노이로제에 걸린 듯 문화적 통일성과 정신적 공동체를 반복적으로 찾고 있음을 보인다. 역으로 이질성을 심하게 거부하거나 심지어 끔찍해 한다. 과거 200년 동안 통일될 때까지 우리 주류문화는 민족공동체/혈연공동체를 전제로 했었다. 독일적인 것에 대한 국수주의적 생각이 오늘날까지도 깊게 문화적으로 각인되어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이전과 같이 분명하게 인종적 이념이 실려 있는 것이다. 나이트 기성세대 상당수가 여전히 ‘인종’이 객관적인 유전적 기준이고 ‘혈통’이 결정적인 문화적 가치라고 오늘날에도 믿고 있다.”(Kaschuba, 2007: 72)

독일민속학계는 다문화의 현실을 인정하여 과거 연구의 틀을 넘어서 이민족을 포함한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좁은 안목의 자폐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타문화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열린 자세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라우터바흐(B.Lauterbach)교수는 독일민속학이 다양한 구성원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괄할 것을 주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온 터키인 혹은 한국 노동자’,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서부에 정착한 독일계스위스인’, ‘러시아에 살다가 이주한 독일계주민’, ‘북아메리카로 이민을 간 독일인들’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Lauterbach, 2000: 16) 사회통합을 위한 민속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단일한 맥락의 문화형태를 추구하기보다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구성원의 일상생활과 정체성 변화를 탐구하는 비교문화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확장된 민속연구는 고전적 학술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관련 연구테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 터키인들의 정체성과 생활문화, 외국으로의 독일인 이주와 독일 내 이주민 비교, 유럽 무슬림과 문화충돌, 이주민집단의 문화적응연구, 갈등의 형태와 통합문제, 상호문화성과 소통, 초문화주의 담론, 이주민정책과 유럽시민권, 주도문화와 병행사회, 이주민의 이중정체성, 직업이주현상과 노동시장, 다문화주의와 소수자정책, 유럽동남부 사회주의체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 변천, 민속의 전통과 혁신 등을 볼 수 있다. 사회 내 다양한 종족집단 간 문화접변과 다양한 외래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현상에 대한 폭넓은 연구들이 추진된 것이다.

민속학이 과거 보여 왔던 내셔널리즘의 지향성을 극복하고 자기 문화권 내에서 ‘다른 존재’와 ‘낮선 것’을 인지하고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갖추게 되었다. 다른 문화에 대해 시선을 전환한 배경은 과거 민속학이 정치적 이용을 경험하였기에 민족주의의 편협한 시야의 위험을 벗어나서 과거사의 오류를 다시 겪지 않으려는 학계내부의 자성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민족만을 연구하면 자신의 특성을 분명히 볼 수 없기에 민속학은 민족적이면서도 국제적인 학문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는 적절한 담론 생산의 필요성이 학술적 개방성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향토문화에서 유럽인류학으로 지평확대

오늘날 국제환경의 변화로 독일은 유럽연합의 한 국가로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체관계에 기초하게 되었다. 이전과 다른 국가연합의 체제는 독일민속학과에 초민족적 가치기준을 가져왔고 국경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민속의 연구방향성과 교수법에서 주변국가와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도록 자극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인 협력사례로 프랑스의 심성학, 미국의 도시사회학 및 영국의 문화학과 함께 유럽인류학으로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다른 유럽지역으로 범주를 확대하면서 이전에 다루지 않던 소재가 학문영역에 들어왔다. 서로 공유할 만한 요소가 없는 외래문화도 이해하는 연구들이 추진되었고 다른 피부색, 낯선 언어, 타 종교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극복하고 포용하려는 학문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 민속학은 독일 국경 및 학과경계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유럽의 틀 안에서 통섭적 교류를 통해 이질적 문화를 함께 연구하는 민속학의 시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과거 단일성의 개념에 집중했던 연구보다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을 함양하고 현대사회의 문화변용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학과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속학의 대상을 확장시킨 변화는 상호문화 비교분석을 통해 인류보편적인 학문의 지평을 열고자하는 학술적 대응으로 이해된다. 현재 독일어권 민속학회 소속 28개 대학교 중 많은 학과가 ‘Volkskunde’라는 대표적인 이름을 내세우지만, 학문의 명칭을 통일하고 있지는 않다. 13개 대학에서 ‘유럽인류학’(Europäische Ethnologie)이란 이름을 민속학과외의 간판으로 쓰고 있다.(Zimmermann, 2005: 5) 이러한 추세는 현재 학교교육이 지닌 성격과 연구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화된 학과정체성은 유럽 내 다민족 커뮤니티를 함께 주목하면서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낯선 생활양식을 고찰하는 비교민속학으로 넓은 시야를 갖추는 협력연구를 보다 촉진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 민속학과외의 주요한 연구테마에서 유럽지역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고전적인 주제를 새로운 확장된 시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고향-정체성-이주’, ‘유럽 내 다양한 민족의 축제풍습’, ‘유럽의 정체성’, ‘유럽 민담의 어제와 오늘’, ‘일상의례의 차이’, ‘현재 풍속의 형태와 기능’, ‘현대사회의 미신형태’, ‘글로벌시대의 마을생활’, ‘이산가족에 관한 구술조사’, ‘유럽의 일상문화와 생활세계’, ‘여가의 문화: 헌당식에서 팝콘서트까지’, ‘노동세계와 직업문화’연구 등을

주제로 삼는다. 그리고 다른 방향은 현대 민속학적 새로운 주제의 접목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사회: 유럽의 소수민족’, ‘매체문화’(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초국적 관계와 글로벌화한 문화과정’, ‘문화생산과 문화전달’(문화정책, 박물관학, 관광학), ‘문화학 학술이론’, ‘유럽사회 내 현대적 갈등’, ‘초민족주의와 디아스포라’, ‘영상인류학’, ‘EU 문화정책’, ‘동시대 민속문화의 변용’과 ‘도시인류학’ 등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민속학은 민족과 국가에 중심을 둔 과거의 관습적 전통에서 벗어나 연구범주의 틀을 유럽지역으로 넓혀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Kaschuba, 1999: 96-97) 동일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그 대상을 유럽 내 주민들로 다양화하고 학제 간 연구와 상호문화성 고찰을 통해 다문화적 시민성을 확대시키는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 중심의 사회체제는 많은 갈등과 희생을 불러왔었다. 하지만 현재 다원적 가치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집단들의 고유문화를 존중하면서 상호이해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통과의례”의 저자인 반 게넵(A. v. Genep)은 민속학이 민족 간 유사점과 차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복합적인 민족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속학자 크라우스(F. S. Krauß)는 이미 한 세기 전 “민속학에 대한 명언”에서 학자의 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민속학자로서 언제나 명심할 것은 모든 문화민족 전문가를 위해 앞서 이끌며 진리를 탐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교적, 미학적인 입장을 고려치 말며, 네 노력을 평가하는 칭찬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속연구가는 언제나 세계시민으로서 생각하고 서술해야만 한다.”(Schenk, 2001: 367) 나아가 그는 “민속학은 유대인, 그리스도교인, 무슬림, 불교신자, 독일인, 슬로바키아인, 영국인, 중국인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학문이다”라며 민속학의 의미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국경을 넘어서 인류보편적인 인문학을 지향하는 학술적 시각과 특정한 민족성에 속박되지 않아야한다는 자세는 오늘날 후세 민속학자들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지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독일사회의 문화적 갈등문제를 진단해보면서 과거 폐쇄적 단일민족성의 편향성을 탈피하며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자한 독일민속학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종전 이후 시대변천에 따라 이주민의 형태는 많이 달라져 왔다. 연구자는 독일 내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고찰하면서 상황에 따라 민속학이 민족문화의 담론을 어떻게 확장시켜 왔고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왔는지 인식하고자 했다.

시기별로 독일사회는 문화적 충돌과 문화갈등의 특징적 성향을 다르게 보여 왔다. 따라서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정리해 보았고 공존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민속학의 전개양상을 포괄

적으로 조망하였다.

전후 동유럽지역에 살던 독일계 주민들이 독일사회로 이주정착하면서 거주민과 생활문화 및 문화적 갈등을 경험한다. 이들은 민족구성원이면서도 타국의 구성원이었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관련한 전후 민속학의 학술적 대응을 살폈다. 그리고 냉전 체제에서 동·서 독민속학의 전개과정을 쫓아서 분단된 이념의 틀에서 달라져온 민속학 학술형태와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통일이후에 구동독주민과의 갈등과 내적 통합을 고민하는 연구 활동을 또한 고찰하였다. 다음 장에서 터키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공동체와 주류사회에서 보이는 문화적 이질성의 갈등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다문화현상과 탈전통의 민족담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가치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가는 민속학의 학문적 전개상을 다루어보았다.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과 내적통합을 지향했던 독일민속학의 전개과정과 논의들은 이 분야의 학문적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속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민족적 동질성에 집착해 왔던 독일의 역사적 경험사례는 여전히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의식을 고집하는 우리에게 문화갈등과 통합논의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종희. 2012.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2): 53-84.
- 주독대사관. 1992. 독일통일 대사전.
- Bausinger, Herman. 1961. *Volkskultur in der technische Welt*, Stuttgart.
- Eisch, Katharina, 2007. Interethnik und interkulturelle Forschung Methodische Zugangsweisen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Methoden der Volkskunde*. Silke Göttisch u. Albrecht Lehmann(eds.): 139-164.
- Glück, Helmut.(eds.) 2000. *Metzler-Lexikon Sprache*, Stuttgart, Weimar.
- Greverus, Ina-Maria. 1969. Zu einer nostalgisch-retrospektiven Bezugsrichtung der Volkskunde, *Hessische Blätter für Volkskunde* 60.: 11-26.
- Heitmeyer, Wilhelm, 1996. Für türkische Jugendliche in Deutschland spielt der Islam eine wichtige Rolle, *Die Zeit*, Online, Nr.35, URL:<http://www.zeit.de/1996/35/heimmey.txt.19960823.xml?page=5>
- Kaschuba, Wolfgang. 2007. Ethnische Parallelgesellschaften?, *Zur kulturellen Konstruktion des Fremden in der europäischen Migration*, *Zeitschrift für Volkskunde*, Heft.1.: 65-85.

- Kaschuba, Wolfgang. 1999. Einführung in die Europäische Ethnologie, München.
- Lauterbach, Burkhard. 2000. Von der Heimatkunde zur Europäischen Ethnologie, Volkskunde als vergleichende Alltagskulturforchung, Augusburger Volkskundliche Nachrichten, 6.Jahrgang, Heft 1.: 5-25.
- Schenk, Annemie. 2001. Interethnische Forschung, Grundriss der Volkskund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sfelder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Rolf W Brednich(eds.): 363-390.
- Schenk, Annemie. 1984. Familie und Wohnen in Stolzenburg, Köln/ Wien.
- Stgeinitz, Wolfgang. 1955 Die volkskundliche Arbei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 Voigt, Vilmos. 2000/2001. Bedeutung und Beleuchtung der Sprachinsel, Acta Ethnologica Danubiana.: 211-222.
- Weber-Kellermann, Ingeborg u. Bimmer, Andreas. 1985. Einführung in die Volkskunde/ Europäische Ethnologie, Stuttgart.
- Weber-Kellermann, Ingeborg u. Schenk, Annemie. 1973. Interethnik und sozialer Wandel in einem mehrsprachigen Dorf des rumänischen Banats, Marburg.
- Wiegmann, Günter. 1991. Theoretische Konzepte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Diskussionen um Regeln und Modelle, Münster.
- Zimmermann, Harm-Peer(eds.), 2005. Empirische Kulturwissenschaft,- Europäische Ethnologie - Kulturanthropologie - Volkskunde: Leitfaden für das Studium einer Kulturwissenschaft an deutschsprachigen Universitäten, Marburg.

김 면: 독일베를린(T.U.)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통일연구원 기초연구사업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 “독일민속학(2012)”, “구술로 본 해외통일운동사의 재인식(2010)” 등이 있고 주요논문으로 ‘분단구조의 동서독민속학(2011)’, ‘나치즘과 독일민속학(2011)’, ‘독일한인통일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2007)’ 등이 있다.(drmyunkim@naver.com)